

A형 1번	적중 강좌명	기초이론반
		선행모의고사 13회

기 출 문 제	<p>1. 다음은 교사가 2015 개정 중학교 한문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만든 <수업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한 뒤 작성한 수업 성찰 일지이다. 괄호 안의 ㉠에 들어갈 명칭을 쓰고,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교수·학습 방법을 쓰시오. [2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년 ○월 ○○일.</p> <p>이번 주부터 한문 산문을 수업했다. <수업 자료>는 추석에 즐겼던 전통놀이인 (㉠)을/을 소개하는 글이었는데,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쉽게 이해했다. 우리 생활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전통문화가 대부분 한자를 주된 기록 수단으로 하여 보존·전승되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p> <p>다음 주부터는 사전, 서적,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한자문화권 국가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한자문화권 문화사전 만들기’ 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제는 모둠별로 (㉡),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하여 장기적 수행과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을/을 활용할 때는 과제 수행의 목표와 개인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 학습을 활용할 때는 정기적으로 활동을 관찰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수업 자료></p> <p>每歲八月望日 男女共聚歌舞 分作左右隊 曳大索兩端 以決勝負 索若中絕 兩隊仆地 則觀者大笑 - 洪錫謨, 『東國歲時記』 -</p> </div>																					
적 중 근 거 자 료	<p><적중></p> <p>*1월: 전통관련 수업자료</p> <p>濟州俗 每歲八月望日 男女共聚歌舞 分作左右隊 曳大索兩端 以決勝負 索若中絕 兩隊仆地 則觀者大笑 以爲照里之戲 是日又作鞦韆及捕鷄之戲</p> <p>*선행모의고사 13회</p> <p>3. 한 교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라서 다음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자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어휘</td> <td>한국의 뜻</td> <td>중국의 뜻</td> </tr> <tr> <td>看病</td> <td>간병하다</td> <td>진찰하다/치료하다</td> </tr> <tr> <td>飯店</td> <td>중국음식점</td> <td>호텔</td> </tr> <tr> <td>書房</td> <td>납편</td> <td>서재</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어휘</td> <td>한국의 뜻</td> <td>일본의 뜻</td> </tr> <tr> <td>親分</td> <td>친밀함</td> <td>그룹의 우두머리</td> </tr> <tr> <td>大丈夫</td> <td>건강하고 씩씩한 남자</td> <td>걱정 없음/괜찮음</td> </tr> </table> </div>	어휘	한국의 뜻	중국의 뜻	看病	간병하다	진찰하다/치료하다	飯店	중국음식점	호텔	書房	납편	서재	어휘	한국의 뜻	일본의 뜻	親分	친밀함	그룹의 우두머리	大丈夫	건강하고 씩씩한 남자	걱정 없음/괜찮음
어휘	한국의 뜻	중국의 뜻																				
看病	간병하다	진찰하다/치료하다																				
飯店	중국음식점	호텔																				
書房	납편	서재																				
어휘	한국의 뜻	일본의 뜻																				
親分	친밀함	그룹의 우두머리																				
大丈夫	건강하고 씩씩한 남자	걱정 없음/괜찮음																				

적 중 근 거 자 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外人</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관계없는 사람</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외국사람</td> </tr> </table>	外人	관계없는 사람	외국사람
	外人	관계없는 사람	외국사람	
	<p>한 교사: 이 자료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한자 어휘가 어떻게 다른가를 통해, ㉠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p> <p>반 교사: 아주 흥미로운 자료네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한자의 공통적 특징과 차이점을 모둠별로 토의·토론하여 발표하도록 하면 좋겠네요.</p> <p>최 교사: 또 ㉢ 모둠별 협동학습과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하여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언어나 문화를 정리하여 사전을 만들기를 하면 학생들이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p> <p>김 교사: 하나 더, ㉣ 한자문화권 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방식의 교류 사례를 찾아 보고 발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네요.</p> <p>한 교사: 네. 이런 점들을 가지고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p> <p><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학습 목표를 서술할 것. ◦ 밑줄 친 ㉡, ㉢, ㉣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각각 쓸 것. <p>정답: ㉠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토론을 통한 한자문화권 이해하기 ㉢ 한자문화권 언어·문화 사전 만들기 ㉣ 한자문화권의 상호 교류 사례 찾아보기 			

A형 5번	강좌명	조선시대 강독자료 모의고사반 4회
--------------	------------	-------------------------------

기 출 문 제	<p>5. 다음은 교사가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한문 산문을 제재로 수업한 내용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고, 괄호 안의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4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padding: 5px;">학습 목표</td> <td style="padding: 5px;">1.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2.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본문</td> <td style="padding: 5px;">古之爲學者 非欲獨善其身也 蓋將窮理而應天下之變 明道而開後來之學 使天下後世 曉然知吾學之可尊 而道脉賴我以不墜 是儒者之先務 其爲志不亦公乎 - 許筠, 學論 -</td> </tr> <tr> <td style="padding: 5px;">풀이하기 유의사항</td> <td style="padding: 5px;">글을 바르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문장에 사용된 단어나 구절의 뜻, 문장이나 문단의 의미,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그리고 문체와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풀이할 수 있어야함을 숙지하도록 한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이해 감상 유의사항</td> <td style="padding: 5px;">한문 산문은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서술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 글에는 어떠한 서술방식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수업 내용 정리</td> <td style="padding: 5px;">◦ 옛날 사람들의 공부 자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2px;">공부의 동기</td> <td style="padding: 2px;">私보다 公에 공부의 뜻을 둬.</td> </tr> <tr> <td style="padding: 2px;">우선해야 할</td> <td style="padding: 2px;">◦ 자신을 수양하고 절조를 지킴.</td> </tr> </table> </td> </tr> </table>	학습 목표	1.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2.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본문	古之爲學者 非欲獨善其身也 蓋將窮理而應天下之變 明道而開後來之學 使天下後世 曉然知吾學之可尊 而道脉賴我以不墜 是儒者之先務 其爲志不亦公乎 - 許筠, 學論 -	풀이하기 유의사항	글을 바르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문장에 사용된 단어나 구절의 뜻, 문장이나 문단의 의미,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그리고 문체와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풀이할 수 있어야함을 숙지하도록 한다.	이해 감상 유의사항	한문 산문은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서술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 글에는 어떠한 서술방식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수업 내용 정리	◦ 옛날 사람들의 공부 자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2px;">공부의 동기</td> <td style="padding: 2px;">私보다 公에 공부의 뜻을 둬.</td> </tr> <tr> <td style="padding: 2px;">우선해야 할</td> <td style="padding: 2px;">◦ 자신을 수양하고 절조를 지킴.</td> </tr> </table>	공부의 동기	私보다 公에 공부의 뜻을 둬.	우선해야 할	◦ 자신을 수양하고 절조를 지킴.
	학습 목표	1.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2.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본문	古之爲學者 非欲獨善其身也 蓋將窮理而應天下之變 明道而開後來之學 使天下後世 曉然知吾學之可尊 而道脉賴我以不墜 是儒者之先務 其爲志不亦公乎 - 許筠, 學論 -													
풀이하기 유의사항	글을 바르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문장에 사용된 단어나 구절의 뜻, 문장이나 문단의 의미,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그리고 문체와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풀이할 수 있어야함을 숙지하도록 한다.														
이해 감상 유의사항	한문 산문은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서술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 글에는 어떠한 서술방식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수업 내용 정리	◦ 옛날 사람들의 공부 자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2px;">공부의 동기</td> <td style="padding: 2px;">私보다 公에 공부의 뜻을 둬.</td> </tr> <tr> <td style="padding: 2px;">우선해야 할</td> <td style="padding: 2px;">◦ 자신을 수양하고 절조를 지킴.</td> </tr> </table>	공부의 동기	私보다 公에 공부의 뜻을 둬.	우선해야 할	◦ 자신을 수양하고 절조를 지킴.										
공부의 동기	私보다 公에 공부의 뜻을 둬.														
우선해야 할	◦ 자신을 수양하고 절조를 지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padding: 5px;">일</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도를 밝혀 후대 학문을 열어 줌. ◦ 후세 사람들에게 유학이 높일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함. ◦ (㉡) </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에 사용된 서술 방식 <p>이 글은 허균이 옛날 사람들과 당시 사람들의 공부 자세를 비교하여 논의한 글의 일부이다. 이와 같이 사물의 이치를 따지거나 자신의 사상을 천명함으로써 남을 설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는 (㉢)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p> </td> </tr> </table>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도를 밝혀 후대 학문을 열어 줌. ◦ 후세 사람들에게 유학이 높일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에 사용된 서술 방식 <p>이 글은 허균이 옛날 사람들과 당시 사람들의 공부 자세를 비교하여 논의한 글의 일부이다. 이와 같이 사물의 이치를 따지거나 자신의 사상을 천명함으로써 남을 설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는 (㉢)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p>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도를 밝혀 후대 학문을 열어 줌. ◦ 후세 사람들에게 유학이 높일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에 사용된 서술 방식 <p>이 글은 허균이 옛날 사람들과 당시 사람들의 공부 자세를 비교하여 논의한 글의 일부이다. 이와 같이 사물의 이치를 따지거나 자신의 사상을 천명함으로써 남을 설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는 (㉢)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p>															

A형 6번	강좌명	모의고사반 6회
-------	-----	----------

기 출 문 제	<p>6. 다음은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에 근거한 ‘한문과 인성’ 영역의 <수업 자료>와 이에 대해 한문 교사들이 나눈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수업 자료> 勿謂閒居 人所不知 鬼神難誣 吾心難欺 屋漏之間 雖曰隱微 十手所指 如弩發機 - 成倪, 十箴 -</p> </div> <p>이 교사는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 자료>는 成倪의 「十箴」 중의 일부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홀로 있을 때라도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경계를 담고 있어서 ‘한문과 인성’ 영역을 지도하기에 적절할 것 같습니다 <수업 자료>를 학습한 뒤에 학생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p> <p>김 교사: 학생활동으로는 ‘自警文 만들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수업 자료>와 같이 선인들이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지은 글을 학습한 후,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맞게 재구성하는 활동으로, 선인들의 생각 속에서 (㉡)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 맞는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기록, 검토, 발표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p> <p>이 교사: 이번 단원 같은 인성 영역은 정의적 평가가 중심이 되므로 교사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학습자 상호 평가나 (㉢)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p> <p>김 교사: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습자 간의 평가가 가능하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으므로 ‘한문과 인성’의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단어를 漢字로 쓸 것. ◦ 괄호 안의 ㉡에 들어갈 말을 ‘한문과 인성’ 영역의 ‘학습 요소’를 반영하여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들어갈 평가 방법을 쓸 것. </div>														
적 중 근 거 자 료	<p><적중> *모의고사 6회</p> <p>6. 다음은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인성’ 수업 계획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4점]</p> <p style="text-align: center;"><수업 계획></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85%;">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단원명</td> <td>더불어 사는 사회</td> </tr> <tr> <td>교과역량</td> <td>의사소통 능력, 인성 역량</td> </tr> <tr> <td>성취기준</td> <td>◦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td> </tr> <tr> <td>수업자료</td> <td>許文貞公琛 陽川人 臨絶 勅其子曰 雖蒙恩眷 無勳可記 愼勿樹碑 喪勿豐侈 以重吾過</td> </tr> <tr> <td>학습활동</td> <td>◦ 풀이하기 - ㉠문장은 화자가 나타내는 어기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종의 행동을 금지하게 하는 문장에 유의한다. -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 自警文 만들기 -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맞게 재구성하는 활동으로, 선인들의 생각 속에서 현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이 있다.</td> </tr> <tr> <td>평가</td> <td>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이 담긴 글 가운데 현재적 가치를 지닌 문장을 정선하되 학습자가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세울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를,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답형 평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관찰법이나 (㉡)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td> </tr> </tbody>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역량’과 ‘학습 활동’에 근거하여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것을 ‘수업 자료’에서 찾아 설명할 것. ◦ 밑줄 친 ㉢의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div>	구분	내 용	단원명	더불어 사는 사회	교과역량	의사소통 능력, 인성 역량	성취기준	◦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	수업자료	許文貞公琛 陽川人 臨絶 勅其子曰 雖蒙恩眷 無勳可記 愼勿樹碑 喪勿豐侈 以重吾過	학습활동	◦ 풀이하기 - ㉠문장은 화자가 나타내는 어기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종의 행동을 금지하게 하는 문장 에 유의한다. -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 自警文 만들기 -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맞게 재구성하는 활동으로, 선인들의 생각 속에서 현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적으로 활용 하는데 중점이 있다.	평가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이 담긴 글 가운데 현재적 가치를 지닌 문장을 정선하되 학습자가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세울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를,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답형 평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관찰법이나 (㉡)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구분	내 용														
단원명	더불어 사는 사회														
교과역량	의사소통 능력, 인성 역량														
성취기준	◦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														
수업자료	許文貞公琛 陽川人 臨絶 勅其子曰 雖蒙恩眷 無勳可記 愼勿樹碑 喪勿豐侈 以重吾過														
학습활동	◦ 풀이하기 - ㉠문장은 화자가 나타내는 어기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종의 행동을 금지하게 하는 문장 에 유의한다. -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 自警文 만들기 -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맞게 재구성하는 활동으로, 선인들의 생각 속에서 현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적으로 활용 하는데 중점이 있다.														
평가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이 담긴 글 가운데 현재적 가치를 지닌 문장을 정선하되 학습자가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세울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를,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답형 평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관찰법이나 (㉡)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A형 7번	강좌명	모의고사반 3회
-------	-----	----------

기 출 문 제	<p>7. (가)는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의 독해’ 중 ‘문장의 구조’와 관련한 수업 자료이다. 이에 대해 (나)와 같이 학생과 대화할 때,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교수·학습 방법을 쓰고, 학생의 마지막 답변에서 틀린 점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 내용을 서술하시오. [4점]</p> <p>(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有餘者常譽人</td> <td>- 成大中, 『青城雜記』 -</td> </tr> <tr> <td>◦ 哀公問社於宰我</td> <td>- 『論語』 -</td> </tr> </table> <p>(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p>교사: 문장의 구조는 (㉠),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비교·분석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 방법으로 문장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시다. 먼저 ‘有餘者常譽人’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는 무엇일까요?</p> <p>학생: ‘有餘者’는 주어이고, ‘譽’가 서술어입니다.</p> <p>교사: 그러면 ‘人’의 문장 성분은 무엇일까요?</p> <p>학생: ‘人’은 목적어입니다.</p> <p>교사: 문장의 구조는 주성분을 중심으로 결합관계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有餘者常譽人’의 문장의 구조는 무엇일까요?</p> <p>학생: 주술목 구조입니다.</p> <p>교사: 예, 맞습니다. 이 문장은 주술목 구조로 ‘남음이 있는 자는 항상 남을 칭찬한다.’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인 ‘哀公問社於宰我’를 분석해 볼까요?</p> <p>학생: ‘哀公’은 주어이고, ‘問社’가 서술어이며, ‘於宰我’가 보어이므로 주술보 구조입니다.</p> </td> </tr> </table> <p>정답 ㉠ 문장 구조 분석하기</p> <p>‘問社’가 서술어이며, ‘於宰我’가 보어이므로 주술보 구조가 아니라, ‘問’이 서술어이며, ‘社’는 목적어이고, ‘於宰我’가 보어이므로 주술목보 구조이다.</p>	◦ 有餘者常譽人	- 成大中, 『青城雜記』 -	◦ 哀公問社於宰我	- 『論語』 -	<p>교사: 문장의 구조는 (㉠),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비교·분석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 방법으로 문장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시다. 먼저 ‘有餘者常譽人’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는 무엇일까요?</p> <p>학생: ‘有餘者’는 주어이고, ‘譽’가 서술어입니다.</p> <p>교사: 그러면 ‘人’의 문장 성분은 무엇일까요?</p> <p>학생: ‘人’은 목적어입니다.</p> <p>교사: 문장의 구조는 주성분을 중심으로 결합관계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有餘者常譽人’의 문장의 구조는 무엇일까요?</p> <p>학생: 주술목 구조입니다.</p> <p>교사: 예, 맞습니다. 이 문장은 주술목 구조로 ‘남음이 있는 자는 항상 남을 칭찬한다.’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인 ‘哀公問社於宰我’를 분석해 볼까요?</p> <p>학생: ‘哀公’은 주어이고, ‘問社’가 서술어이며, ‘於宰我’가 보어이므로 주술보 구조입니다.</p>	
◦ 有餘者常譽人	- 成大中, 『青城雜記』 -						
◦ 哀公問社於宰我	- 『論語』 -						
<p>교사: 문장의 구조는 (㉠),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비교·분석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 방법으로 문장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시다. 먼저 ‘有餘者常譽人’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는 무엇일까요?</p> <p>학생: ‘有餘者’는 주어이고, ‘譽’가 서술어입니다.</p> <p>교사: 그러면 ‘人’의 문장 성분은 무엇일까요?</p> <p>학생: ‘人’은 목적어입니다.</p> <p>교사: 문장의 구조는 주성분을 중심으로 결합관계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有餘者常譽人’의 문장의 구조는 무엇일까요?</p> <p>학생: 주술목 구조입니다.</p> <p>교사: 예, 맞습니다. 이 문장은 주술목 구조로 ‘남음이 있는 자는 항상 남을 칭찬한다.’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인 ‘哀公問社於宰我’를 분석해 볼까요?</p> <p>학생: ‘哀公’은 주어이고, ‘問社’가 서술어이며, ‘於宰我’가 보어이므로 주술보 구조입니다.</p>							
적 중 근 거 자 료	<p><적중></p> <p>11. (가), (나)에 대한 評語로 적절한 것을 <보기> (㉠)~(㉢)에서 찾아 국역하시오. [4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가)君子喜揚人善 小人喜揚人不善 達人常欲人達 窮人常欲人窮 吉人喜聞人長 庸人喜聞人短 有餘者常譽人 不足者常毀人 </td> </tr> <tr> <td> (나)流俗之弊 甚於異端 游食之害 甚於盜賊 朋黨之禍 甚於兵燹 </td> </tr> <tr> <td> (나)學無當於實用 不如無學 文無裨於世教 不如無文 -成大中 「質言」 </td> </tr> </table> <p><보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僕嘗有語曰 勝於我者慕之 等於我者愛之 不及於我者憐之 天下可太平 </td> </tr> <tr> <td> (㉡)入裏之言 刺骨之論 志士憤激 莫之救 而徒發浩嘆者 此三件 </td> </tr> <tr> <td> (㉢)士執恥爲無用 語有裨世教者 -成大中 「質言」 </td> </tr> </table>	(가)君子喜揚人善 小人喜揚人不善 達人常欲人達 窮人常欲人窮 吉人喜聞人長 庸人喜聞人短 有餘者常譽人 不足者常毀人	(나)流俗之弊 甚於異端 游食之害 甚於盜賊 朋黨之禍 甚於兵燹	(나)學無當於實用 不如無學 文無裨於世教 不如無文 -成大中 「質言」	(㉠)僕嘗有語曰 勝於我者慕之 等於我者愛之 不及於我者憐之 天下可太平	(㉡)入裏之言 刺骨之論 志士憤激 莫之救 而徒發浩嘆者 此三件	(㉢)士執恥爲無用 語有裨世教者 -成大中 「質言」
(가)君子喜揚人善 小人喜揚人不善 達人常欲人達 窮人常欲人窮 吉人喜聞人長 庸人喜聞人短 有餘者常譽人 不足者常毀人							
(나)流俗之弊 甚於異端 游食之害 甚於盜賊 朋黨之禍 甚於兵燹							
(나)學無當於實用 不如無學 文無裨於世教 不如無文 -成大中 「質言」							
(㉠)僕嘗有語曰 勝於我者慕之 等於我者愛之 不及於我者憐之 天下可太平							
(㉡)入裏之言 刺骨之論 志士憤激 莫之救 而徒發浩嘆者 此三件							
(㉢)士執恥爲無用 語有裨世教者 -成大中 「質言」							

적 중 근 거 자 료	<p>*모의고사 3회</p> <p>6. 다음은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의 ‘한문의 독해’를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의 일부이다. 본문 풀이를 참조하여 ㉠에 알맞은 성취기준을 쓰고, ㉡, ㉢에 들어가 내용을 쓰고, ㉣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쓰시오.[4점]</p> <p style="text-align: center;"><교수·학습 지도안></p>	
	단원명	우리 건축물
	학습 목표	<p>1.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p> <p>2. (㉠)</p> <p>3.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p>
	본문	<p>公酒樂之 伐材植瓦 以興營作 始於甲戌冬 終於丁丑秋 ……又令其徒勤謹而好善者居而主之 夏蒔蔬菜 冬積薪芻 以施人畜 永世無墜 公之德惠及物之博 此亦可見矣 不遠千里 請記於予 予敢不樂而書之 -權近 「德方院記」</p>
	도입	<p>◦ 동기 유발</p> <p>-생략-</p>
전개	<p>◦ 본문 풀이</p> <p>문장의 유형을 話者が 나타내는 語氣를 기준으로 나누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담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의문문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실제 대담을 요구하는 일반 의문문 외에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대담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의식적으로 물어보는 반어 유형이 있다.</p> <p>*문장의 구조: 公酒樂之. 주술목 구조이다.</p> <p>*본문에서 의문이 일어난 문장은 (㉡)이고, 풀이는 (㉣)다. …생략…</p> <p>◦ 모둠 활동</p> <p>[방법]</p> <p>-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 사이의 일정한 결합 방식을 분석하고 문장 독해에 활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있다. 4개 조로 나누어 본문에 나온 문장의 구조를 구별하여 발표하도록 한다.</p>	
<p>정답 ㉠ 문장의 유형(의문문)을 구별한다.</p> <p>㉡ 予敢不樂而書之</p> <p>㉢ 내가 감히 즐겁게 써주지 않겠는가?</p> <p>㉣ <u>문장 구조 분석하기</u></p>		

A형 9번	강좌명	소설강독
-------	-----	------

기 출 문 제	<p>9. 밑줄 친 ㉠, ㉡의 의미를 순서대로 서술하고, 밑줄 친 ㉢, ㉣의 의미를 주체의 차이에 유의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翁嘗支離其辭 遷就而爲之 莫不曲中 內含譏諷 蓋辯士也 客索問 無以復詰 乃忿然曰 翁亦見畏乎 翁默然良久 忽厲聲曰 ㉠可畏者 莫吾若也 吾右目爲龍 左目爲虎 舌下藏斧 彎臂如弓 念則赤子 差爲夷戎 不戒 則將自噉自齧 自戕自伐 是以聖人克己復禮 閑邪存誠 未嘗不自畏也 語數十難 皆辨捷如響 竟莫能窮 自贊自譽 嘲傲旁人 ㉡人皆絕倒 而翁顏色不變 或言海西蝗 官督民捕之 翁問捕蝗何爲 曰 是虫也 小於眠蠶 色斑而毛 飛則爲螟 緣則爲蝥 ㉢害我稼穡 號爲滅穀 故將捕而瘞之耳 翁曰 此小虫不足憂 吾見鍾樓墳道者 皆蝗耳 長皆七尺餘 頭黔日葵 口大運拳 咄啞僂旅 蹠接尻連 ㉣損稼殘穀 無如是曹 我欲捕之 恨無大匏 左右皆大恐 若真有是虫然</p> <p style="text-align: right;">- 朴趾源, 閔翁傳 -</p> </div>
적 중 근 거 자 료	<p><적중></p> <p>*소설 강독: 朴趾源(1737-1805) 「閔翁傳」</p> <p>*밑줄 친 ㉠이라 표현한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 서술하시오.</p> <p>翁嘗支離其辭 遷就而爲之 莫不曲中 內含譏諷 蓋㉠辯士也 客索問 無以復詰 乃忿然曰 翁亦見畏乎 翁默然良久 忽厲聲曰 可畏者莫吾若也 吾右目爲龍 左目爲虎 舌下藏斧 彎臂如弓 念則赤子 差爲夷戎 不戒 則將自噉自齧 自戕自伐 是以聖人克己復禮 閑邪存誠 未嘗不自畏也</p> <p>諷 나우라다 기 索 다하다 삭 厲 사납다 러 彎 굽다 만 臂 팔 비 噉 먹다 담 齧 깨물다 설 戕 죽이다 장 閑 막다 한</p> <p>민웅은 말을 할 때면 장황하면서도,¹⁾ 이리저리 둘러대지만,²⁾ 어느 것 하나 꼭진히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그 속에는 풍자를 담고 있었으니, 그는 달변가라 할 만하다. 손이 용에게 물을 말이 다하여, 더 이상 따질 수 없게 되자, 마침내 분이 올라 하는 말이, “용도 역시 두려운 것을 보았습니까?”하니, 용이 말없이 한참 있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두려워할 것은 나 자신만 한 것이 없다네. 내 오른 눈은 용이 되고, 왼 눈은 범이 되며, 허 밑에는 도끼를 강추고, 팔목은 활처럼 휘었으니, 깊이 잘 생각하면 갓난아기처럼 순수한 마음을 보존하겠으나,³⁾ 생각이 조금만 어긋나도 되놈이 되고 만다네.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장차 제 자신을 잡아먹거나 물어뜯고, 쳐 죽이거나 베어 버릴 것이야. 이 때문에 성인은 私心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간 것이며, 사악함을 막아 진실된 자신을 보존한 것이니, 나는 나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없다네.”하였다.</p> <p>*밑줄 친 ㉡에 해당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p> <p>語數十難 皆辨捷如響 竟莫能窮 自贊自譽 嘲傲旁人 ㉡人皆絕倒 而翁顏色不變 或言海西蝗 官督民捕之 翁問捕蝗何爲 曰 是虫也 小於眠蠶 色斑而毛 飛則爲螟 緣則爲蝥 害我稼穡 號爲滅穀 故將捕而瘞之耳 翁曰 此小虫不足憂 吾見鍾樓墳道者 皆蝗耳 長皆七尺餘 頭黔日葵 口大運拳 咄啞僂旅 蹠接尻連 損稼殘穀 無如㉢是曹 我欲捕之 恨無大匏 左右皆大恐 若真有是虫然</p> <p>捷 빠르다 첩 傲 업신여기다 오 蝗 메뚜기 황 蝥 누에 잠 斑 아롱지다 반 螟 열구 명 緣 기여오르다 연 蝥 해충 모 瘞 울다 예 墳 메우다 전 黔 검다 검 葵 번쩍이다 형 僂 몸을 구부린 모양 우 旅 500명, 우리 러 蹠 발바닥 척 尻 꿈무니 고 匏 박 포</p>

<p>적 중 근 거 자 료</p>	<p>수십 가지 難題를 물어보아도, 모두 메아리처럼 재빨리 대답해내, 끝내 아무도 그를 궁지에 몰 수 없었다. 자신에 대해서는 추어올리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한 반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조롱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옹의 말을 듣고 배꼽을 잡고 웃어도,⁴⁾ 옹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누가 말하기를, “황해도는 蝗蟲이 들끓어 관에서 백성을 독려하여 잡느라 야단들입니다.”하자, 옹이, “황충을 뭐 하려고 잡느냐?”하고 물었다. “이 벌레는 크기가 첫장 잔 누에보다도 작으며, 색깔은 알록달록하고 털이 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을 명이라 하고, 벼줄기에 기어오르는 것을 모라 하는데, 우리의 벼농사에 피해를 주므로, 이를 멸구라 부릅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파운을 작정이지요.”하니, 옹이 말하기를, “이런 작은 벌레들은 근심할 거리도 못 된다네. 내가 보기에 종루 앞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황충이오. 길이는 모두 7척 남짓이고, 머리는 까맣고 눈은 반짝거리고, 입은 커서 주먹이 들락날락할 정도인데, 웅얼웅얼 소리를⁵⁾ 내고 꾸부정한 모습으로 줄줄이 몰려다니며, 발꿈치가 달고 궁둥이를 잇댄다. 곡식이란 곡식은 죄다 해치우는 것이, 이것들만 한 것이 없더군.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큰 바가지가 없어 아쉽게도 잡지를 못했네.”하였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모두 정말로 이러한 벌레가 있는 줄 알고 크게 무서워하였다.</p>
--	---

A형 10번	강좌명	고려시대 한시읽기
--------	-----	-----------

기 출 문 제	<p>10. 시상 전개상 서로 상반된 상황에 있는 시어 2가지를 찾아 쓰고, 그 상황을 각각 서술하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山花發幽谷 欲報山中春 何曾管開落 多是定中人 - 李奎報, 北山雜題 -</p> </div>
적 중 근 거 자 료	<p><적중> *『고려시대 한시읽기』 146쪽</p> <p>山花發幽谷 산꽃이 깊은 골짜기에 피어 欲報山中春 산중의 봄을 알리려 하지. 何曾管開落 피고 지는 것을 어찌 일찍이⁶⁾ 상관했던가 多是定中人 모두가 선정에 든 사람이니.</p> <p>管 관계하다 관 定 禪定(마음을 한 사물에 집중하여 산란하지 않은 경지)의 준말</p> <p><감상> 깊은 골짜기에 봄꽃이 피어 산중에도 봄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듯하다. 그러나 꽃이 피고 지는 것에 대해 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선정에 든 사람들이라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시는 산속에 사는 이들의 脫俗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p>

A형 11번	강좌명	고려시대 한문학사 자료
--------	-----	-----------------

기 출 문 제	<p>11. 밑줄 친 ㉠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 쓰고, 밑줄 친 ㉡의 특징을 그 典範과의 관계에 유의하여 서술하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高麗氏開國 文治大興 金文烈富軾 鄭諫議知常 唱之於前 陳補闕渾 李大諫仁老 李學士奎報 金員外克己 林上舍椿 齊名一時 一詩道之中興也 益齋李文忠公 復起而振之 稼亭李文孝公 繼之 先生 稼亭之子 益老之門弟 其文章有㉠家法淵源之正 早擢元朝制科 周旋翰院 所得益深 斂而東還 敷爲文章 措諸事業 譽望蔚然 元學士歐陽文忠公 嘗一見先生 深加器重 有海外傳鉢之句 先生之名 隱然聞於天下 蓋㉡先生之文 本之以六經 參之以史漢 潤色之以諸子 鼓舞動盪 滂然而爲雲雷 爛然而爲星斗 霏然而爲江河 躍然而爲龍虎 變態無窮 如晴躋終南 衆皴前陳 不暇應接者矣 一時文人才士 洽然宗之 薰然浸郁 雄峻如鄭圃隱 簡潔如李陶隱 豪邁如鄭三峯 典雅如權陽村 皆不出先生範圍之內 豈非魁然傑然 問世而卓立者乎</p> <p style="text-align: right;">- 徐居正, 牧隱詩精選序 -</p> </div>
적 중 근 거 자 료	<p><적중> *1-2월 고려시대 한문학사 자료(고려 문학의 淵源)</p> <p>라) 高麗文學의 淵源 *徐居正 「牧隱詩精選序」</p> <p>“吾東方古稱詩書之國 以文章鳴世者 代不乏人 乙文德鳴於高句麗 薛聰崔致遠鳴於新羅 高麗氏開國 文治大興 金文烈富軾 鄭諫議知常唱之於前 陳補闕渾 李大諫仁老 李學士奎報 金員外克己 林上舍椿 齊名一時 一詩道之中興也 益齋李文忠公復起而振之 稼亭李文孝公繼之 先生 稼亭之子 益老之門弟 其文章有家法淵源之正 早擢元朝制科⁷⁾ 周旋⁸⁾翰院⁹⁾ 所得益深 斂而東還 敷爲文章 措諸事業 譽望蔚然 元學士歐陽文忠公嘗一見先生 深加器重¹⁰⁾ 有海外傳鉢之句 先生之名 隱然聞於天下”</p> <p>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시서의 나라라고 일컬어질 만큼 문장으로 한 세상을 풍미한 이들이 각 시대마다 끊이지 않고 배출되었으니, 을지문덕은 고구려에서 이름을 드날렸고, 설총과 최치원은 신라에서 이름을 드날렸다. 그러다가 고려씨가 새로 나라를 열면서 문치가 크게 일어난 결과, 문열 김부식과 간의 정치상이 앞에서 창도하고, 보궐 진화와 대간 이인로와 학사 이규보와 원외 김극기와 상사 임춘이 한 시대에 이름을 나란히 하였으니, 이에 시도가 한 번 중흥을 맞이하였다. 그 뒤에 익재 이제현 문충공이 나와서 문풍을 떨쳐 일으키고, 가정(稼亭 李穀) 이 문효공이 그 뒤를 이어 발전시켰는데, 선생은 바로 가정의 아들이요 익로의 문생이다. 따라서 선생의 문장은 이미 가법과 연원의 바름을 얻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 또 이른 나이에 원조의 제과에 급제하고 나서 한원에서 주선하는 동안 터득한 바가 또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를 수렴하여 우리 동방으로 돌아와서 한편으로는 문장으로 펼쳐내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성예와 명망이 울연해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원나라의 학사인 구양 문충공(歐陽玄)이 일찍이 선생을 한 번 보고는, 선생의 뛰어난 재질에 깊이 탄복한 나머지 “의발이 해외로 전해졌다.”는 구절을 남기면서부터 선생의 명성이 은연중에 천하에 퍼지게 되었다.</p>

A형 12번	강좌명	고려 시문을 통한 맥잡기
--------	-----	------------------

기 출 문 제	<p>12. 밑줄 친 ㉠, ㉡을 국역하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十二年 秋九月 京都雪六尺 中畏大夫 沛者於昇留 評者左可慮 皆以王后親戚 執國權柄 其子弟並恃勢驕侈 掠人子女 奪人田宅 國人怨憤 王聞之 怒欲誅之 左可慮等 與椽那謀叛 十三年 夏四月 聚衆 攻王都 王徵畿內兵馬 平之 遂下令曰 近者 ㉠官以寵授 位非德進 毒流</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百姓 動我王家 此寡人不明所致也 令汝四部 各舉賢良在下者 於是 四部共舉東部晏留 王徵之 委以國政 晏留言於王曰 微臣庸愚 固不足以參大政 西鴨渌谷左勿村乙巴素者 琉璃王大臣 乙素之孫也 性質剛毅 智慮淵深 不見用於世 力田自給 大王若欲理國 非此人則不可 王遣使 以卑辭重禮 聘之 拜中畏大夫 加爵爲于台 謂曰 孤叨承先業 處臣民之上 德薄材短 未濟於理 先生藏用晦明 窮處草澤者 久矣 今不我棄 幡然而來 非獨孤之喜幸 社稷生民之福也 ㉡請安承教 公其盡心 巴素意雖許國 謂所受職不足以濟事 乃對曰 臣之騫蹇 不敢當嚴命 願大王 選賢良 授高官 以成大業 王知其意 乃除爲國相 令知政事 於是 朝臣國戚 謂素以新聞舊疾之 王有教曰 無貴賤 苟不從國相者 族之 素退而告人曰 不逢時則隱 逢時則仕 士之常也 今上待我以厚意 其可復念舊隱乎 乃以至誠奉國 明政教 愼賞罰 人民以安 內外無事 冬十月 王謂晏留曰 若無子之一言 孤不能得巴素以共理 今庶績之凝 子之功也 乃拜爲大使者 - 『三國史記』</p> </div>
적 중 근 거 자 료	<p>*5-6월 고려 詩文을 통한 맥잡기. 『三國史記』: 乙巴素</p> <p>乙巴素 高句麗人也 國川王時 沛者¹¹⁾於昇留 評者左可慮等 皆以外戚擅權 多行不義 國人怨憤 王怒欲誅之 左可慮等謀反 王誅竄之 遂下令曰 近者 官以寵授 位非德進 毒流百姓 動我王家 此寡人不明所致也 今汝四部¹²⁾ 各舉賢良在下者 於是四部共舉東部晏留 王徵之 委以國政 動 어지럽다 동 所致: (어떤 까닭으로) 빚어진 결과.</p> <p>을파소는 고구려 사람이다. 故國川王 때 패자인 어비류와 평자인 좌가려 등은 모두 외척으로 권세를 마음대로 하고 의롭지 않은 일을 많이 행하여 나라 사람들이 원망하니, 왕이 노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좌가려 등이 반역을 모의하니, 왕이 그들을 죽이거나 귀양보내면서 마침내 명령을 내려 말하길 “그래 벼슬은 은총으로 주고, 작위는 덕으로 승진시키지 아니하여 그 해독이 백성에게 흐르고, 우리 왕실을 어지럽혔으니, 이것은 과인이 현명하지 못한 결과이다. 지금 너희 사부에서 아래 사람으로 현량한 사람을 각각 천거하라.”라 하였다. 이에 사부에서 함께 동부의 안류를 천거하니, 왕이 그를 불러 국정을 맡기려 하였다.</p> <p>晏留言於王曰 微臣庸愚 固不足以參大政 西鴨渌谷左勿村乙巴素者 琉璃王大臣乙素之孫也 性質剛毅 智慮淵深 不見用於世 力田自給 大王若欲理國 非此人則不可 王遣使 以卑辭重禮聘之 拜中畏大夫 加爵爲于台¹³⁾ 謂曰 孤叨承先業 處臣民之上 德薄材短 未濟¹⁴⁾於理 先生藏用晦明 窮處草澤者久矣 今不我棄 幡然而來 非獨孤之喜幸 社稷生民之福也 請安承教 公其盡心</p> <p>毅 곧세다 의 叨 외람되이 도 幡然(마음을 돌이키다 번): 갑자기, 빨리</p> <p>안류는 왕에게 말하길 “미천한 저는 용렬하고 어리석어 진실로 큰 정치에 참여할 만하지 못합니다. 서쪽 암록국 좌물촌에 을파소는 유리왕 때의 대신인 을소의 손자입니다. 성질이 곧세고 지략이 깊으나 세상에 쓰여지지 못하여 힘써 농사지으며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만약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신다면 이 사람이 아니면 불가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사신을 보내어 말을 낮추고 예의를 중하게 하여 그를 초빙하여, 중외대부에 벼슬을 주고 작위를 더하여 우대로 삼고는 “과인은 외람되이 선왕의 업을 이어 신민의 위에 처했으나, 덕이</p>

<p>적 중 근 거 자 료</p>	<p>적고 재주가 부족하여 다스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선생은 쓰임을 감추고 현명함을 숨기어 초택에 곤궁하게 처한 자가 오래되었다. 지금 나를 버리지 않고 빨리 와니, 다만 과인의 행복만이 아니고 사직과 백성의 복이다. 청컨대 가르침을 편안히 이어받들겠으니, 공은 마음을 다해달라.”라 하였다.</p> <p>巴素意雖許國 謂所受職不足以濟事 乃對曰 臣之驚蹇 不敢當嚴令 願大王選賢良 授高官 以成大業 王知其意 乃除爲國相 令知政事</p> <p>蹇 굵뜨다 건</p> <p>을파소는 마음속으로 비록 나라에 허락하였으나, 받은 직책이 일을 이룰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대답하기를 “저는 노둔하여 감히 엄한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현량한 사람을 뽑아 높은 관직을 주어서 대업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니, 왕은 그의 마음을 알고 마침내 국상을 제수하여 정사를 맡게 하였다. (*‘不在其位 不謀其政’의 내용을 고려하여 을파소의 행동을 서술하라.)</p> <p>於是朝臣國戚謂巴素以新問舊 疾之 王有教曰 無貴賤 苟不從國相者 族之 巴素退而告人曰 不逢時則隱 逢時則仕 士之常也 今上待我以厚意 其可復念舊隱乎 乃以至誠奉國 明政教 慎賞罰 人民以安 內外無事 王謂晏留曰 若無子之一言 孤不能得巴素以共理 今庶績之凝 子之功也 拜爲大使者 至山上王七年秋八月 巴素卒 國人哭之慟 -『三國史記』</p> <p>問 차별 간 族 씨족을 멸하다 죽 孤 왕후의 謙稱 고 績 성과 적 大使者=太使者: 고구려 때의 십사 관등 가운데 여섯째 등급.</p> <p>이 때 조정의 신하들과 나라의 친척들은 ‘을파소가 새로 벼슬하면서 구관과 차별하였다’고 하면서 그를 미워했다. 왕이 말하기를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만약 상국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일족을 멸할 것이다.”라 하였다. 을파소가 물러나 사람들에게 말하길 “때를 만나지 못하면 숨고, 때를 만나면 벼슬하는 것이 선비의 떳떳함이다. 지금 왕께서 나를 두터운 마음으로 대우하시니, 어찌 다시 예전 숨을 것을 생각하겠는가?”하고, 마침내 지극한 정성으로 나라를 받들고, 정치와 교화를 밝히고 상과 벌을 신중히 하니, 백성이 안정되고 내외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 왕이 안류에게 말하길 “만약 그대의 한마디 말이 없었다면 과인은 을파소를 얻어 함께 다스릴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많은 공적이 쌓인 것은 그대의 공이다.”라고 하고, 대사자의 벼슬을 주었다. 산상왕 7(203)년 가을 8월에 을파소가 죽으니, 나라 사람들이 통곡했다.</p>
--	---

B형 1번	강좌명	선행모의고사 6회
--------------	------------	------------------

기 출 문 제	<p>3교시</p> <p>1. 다음은 교사가 2015 개정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허사를 지도하기 위해 제작한 학습 자료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2점]</p> <p style="text-align: center;">[허사의 쓰임 학습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1단계) 허사를 찾아 한자에 ○표 해 봅시다.</p> <p>◦ 雪色白於紙 - 『東國李相國集』 -</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人與人相愛 則不相賊 - 『墨子』 -</p> <p>◦ 古人一日養 不以三公換 - 『擊蒙要訣』 -</p> </div> <p>(2단계) 허사에 속하는 품사를 알아봅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품사</th> <th style="width: 70%;">설명</th> <th style="width: 20%;">예</th> </tr> </thead> <tbody> <tr> <td>개사</td> <td>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 등 명사류 앞에 놓여 그 명사류를 서술어와 연결해 주면서 처소, 대상, 도구, 시간, 원인, 비교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td> <td>於, 以</td> </tr> <tr> <td>(㉠)</td> <td>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이다.</td> <td>與, 則</td> </tr> </tbody>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3단계) 허사의 쓰임을 유추하여 문장을 풀이해 봅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문장</td> <td>雪</td> <td>色</td> <td>白</td> <td>於</td> <td>紙</td> </tr> <tr> <td>뜻</td> <td>눈</td> <td>빛</td> <td>희다</td> <td>(㉠)</td> <td>종이</td> </tr> <tr> <td>풀이</td> <td colspan="5"></td> </tr> </table> </div>	품사	설명	예	개사	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 등 명사류 앞에 놓여 그 명사류를 서술어와 연결해 주면서 처소, 대상, 도구, 시간, 원인, 비교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於, 以	(㉠)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이다.	與, 則	문장	雪	色	白	於	紙	뜻	눈	빛	희다	(㉠)	종이	풀이					
품사	설명	예																										
개사	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 등 명사류 앞에 놓여 그 명사류를 서술어와 연결해 주면서 처소, 대상, 도구, 시간, 원인, 비교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於, 以																										
(㉠)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이다.	與, 則																										
문장	雪	色	白	於	紙																							
뜻	눈	빛	희다	(㉠)	종이																							
풀이																												
적 중 근 거 자 료	<p><적중></p> <p>*선행모의고사 6회: 접속사 則</p> <p>2. 밑줄 친 ㉠의 품사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器滿(㉡)則溢 人滿則喪 - 『明心寶鑑』</p> </div> <p>(㉢)節之所以閑其淫也 制之所以防其軼也 雖然其節之制之 皆循天(㉣)則之本然 而非人之私所能爲也 - 『經世遺表』</p> <p>정답 ㉠ 접속사 ㉡ 명사</p>																											

적
중
근
거
자
료

시오.[2점]

<조사 및 작성 방법>

- 고사성어의 유래, 속뜻, 관련 성어 등으로 구성할 것.
- 고사성어는 漢字로 쓰고 유래는 한문 원문을 제시할 것.

<활동지 : 1모듬>

성어	(㉠)
유래	吳伐越 闔廬傷而死 子夫差立 子胥復事之 夫差志復讎 朝夕臥薪中 出入使人呼曰 夫差 而忘越人之殺而父邪 周敬王二十六年 夫差敗越于夫椒 越王句踐以餘兵 棲會稽山 請爲臣 妻爲妾 子胥言不可 太宰伯嚭受越賂 說夫差赦越 句踐反國 懸膽於坐臥 卽仰瞻嘗之曰 女忘會稽之恥邪 舉國政屬大夫種 而與范蠡治兵 事謀吳 『十八史略』
겉뜻	땀나무에 눕고, 쓸개를 맛보다.
속뜻	원수를 갚기 위하여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

***선생모의고사 14회**

1.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연구수업 준비를 위한 대화이다. ㉠에 들어갈 성어를 漢字로 쓰고, ㉡에 들어갈 활동을 쓰시오.[2점]

교육실습생: 옛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를 학습하는 연구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문 교사: 네, 어떤 내용의 수업인가요?

교육실습생: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通鑑節要』에, “蘇秦弟代厲 亦以(㉠)顯於諸侯”라 하였는데, 여기서 (㉠)은 ‘각지를 돌아다니며 자기의 정치적 견해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한문 교사: 잘 선택했네요. 교수·학습으로 (㉡)를 통해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부분을 찾게 하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 遊說 ㉡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B형 6번	강좌명	조선한문학사
--------------	------------	---------------

기 출 문 제	<p>6. 밑줄 친 ㉠이 출현하기 이전 시기로 한정하여, 각 시기 시풍의 병폐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國朝之詩 自明宣以後 蓋累變焉 蘇齋芝川 才具宏蓄 氣力昌大 然雅俗兼陳 體裁未純 故其弊也雜 孤竹玉峰 以清新秀警矯之 然神寒骨薄 氣象急促 故其弊也隘 東岳石洲 又以渾圓和平矯之 然思冗語膚 格調不高 故其弊也腐 東溟又以悲壯整麗矯之 然叫喚紛拏 情境不真 故其弊也虛 於是乎金三淵洪滄浪之詩出焉 三淵則原本於枚李曹謝 滄浪則根極乎王孟岑高 而及恥爲粗氣浮響 則一也 是故三淵之詩 警拔奇健而主于骨力 滄浪之詩 清華秀傑而主于風神 求其一言一句 近於腐爛凡俗者 蓋無之矣 近日之詩 當以㉠三子者 稱首焉 - 李夏坤, 『頭陀草』 -</p> </div>
적 중 근 거 자 료	<p><적중></p> <p>*1-2월 조선한문학사: 조선중기 詩壇의 변화와 17세기 漢詩의 경향</p> <p>李夏坤, 『洪滄浪詩集序』 “國朝之詩 自明宣以後 蓋累變焉 蘇齋, 芝川 才具¹⁵⁾宏蓄 氣力昌大 然雅俗兼陳 體裁未純 故其弊也雜 孤竹, 玉峰 以清新秀警矯之 然神寒骨薄 氣象急促 故其弊也隘 東岳, 石洲 又以渾圓和平矯之 然思冗語膚 格調不高 故其弊也腐 東溟又以悲壯整麗矯之 然叫喚紛拏¹⁶⁾ 情境不真 故其弊也虛 於是乎金三淵洪滄浪之詩出焉</p> <p>冗 변잡하다 용 膚 알다 부 叫 떠들썩하다 노(우리 조선의 시는 明宗과 宣祖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蘇齋 盧守愼과 芝川 黃廷彥은 재능을 풍부하게 쌓고 기력을 크게 발휘하였지만 우아함과 비속함을 함께 드러내고, 體裁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잡된 폐단을 露呈하였다. 孤竹 崔慶昌과 玉峰 白光勳은 청신과 수경으로 저들의 폐단을 교정하였으나 정신이 쓸쓸하고 골격이 얇으며, 기상이 촉급하기 때문에 局量이 협착한 폐단을 露呈하였다. 東岳 李安訥과 石洲 權譚이 또 渾圓과 和平함으로써 저들의 폐단을 교정하였으나 생각이 용렬하고 말이 얕으며 격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진부한 폐단이 있다. 東溟 鄭斗卿이 또 비장함과 정제된 아름다움으로 저들의 폐단을 교정하였으나 울부짖고 어수선한 느낌이 있고 정경이 참되지 않기 때문에 허황된 폐단을 露呈하였다. 이리하여 三淵 金昌翁과 滄浪 洪世泰의 시가 출현하게 되었다.)”</p> <p>李夏坤은 조선중엽 명종에서 시작하여 17세기 말기까지의 詩壇을 ㉠盧守愼·黃廷彥 ㉡崔慶昌·白光勳 ㉢李安訥·權譚 ㉣鄭斗卿 ㉤金昌翁·洪世泰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였다.</p> <p>㉠盧守愼(1515-1607)·黃廷彥(1532-1607)은 조선전기 한시의 축소판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활동한 시기는 16세기 중반이다. 여기에 鄭士龍까지 포함한 이른바 ‘湖蘇芝’는 詩語의 按排, 典故의 驅使, 詩想의 치밀한 조직 같은 시의 형식미와 氣骨을 중시하는 宋詩風을 위주로 창작하여 조선전기의 주류적 경향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p> <p>㉡崔慶昌(1539-1583)·白光勳(1537-1582)은 ‘湖蘇芝’의 사조를 부정하며 등장하였고, 활약한 시기는 16세기 후반이다. 李達을 포함하여 三唐派로 불리는 이들은 조선시대 한시의 흐름을 宋詩風에서 唐詩風으로 뒤바꾼 개척자로서 이후 시단의 주류를 열었다. 이들은 인간의 낭만적 감정을 서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그 폐단 또한 만만치 않았다.</p> <p>三唐派의 한계를 극복한 시인이 ㉢李安訥(1571-1637)·權譚(1569-1612)로서 이들이 활약한 시기는 16세기 말엽과 17세기 전반이다. 17세기 시인들은 삼당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으면서도 이들이 露呈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學唐이라는 큰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연약한 정서의 극복, 시적 긴밀도의 성취, 詩體와 규모의 확대를 통해 시의 수준을 높였다. 거칠게 표현하여 三唐詩人이 晚唐詩風이었다면 이들은 盛唐詩의 격조와 운치를 표현해내었다.</p> <p>삼당시인과 權譚의 성과에 불만을 가지고 格調를 한층 높이고자 한 시인이 ㉣鄭斗卿(1597-1676)이다. 정두경이 중심이 된 일군의 시인은 17세기 전기에서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 활발하게 활약했다. 여기에는 李敏求(1589-1670), 許穆(1593-1682), 金得臣(1604-1684) 등이 포함되어 있다. 漢魏盛唐詩를 모범으로 삼아 학습한 이들은 漢魏盛唐의 시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에 입각하여 창작과 비평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p> <p>선배들이 唐詩를 배우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한계로 지적하며 漢魏古詩, 樂府詩의 가치와 의의를 발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창작하는 열의를 보였다.</p>

B형 8번	강좌명	선행모의고사 6회
--------------	------------	------------------

기 출 문 제	<p>8. 밑줄 친 ㉠의 주체와 그 행위를 서술하고, 밑줄 친 ㉡의 의미를 찾아 서술하시오. [4점]</p> <p>凡爲詩 意在言表 含蓄有餘 爲佳 若語意早露 直說無蘊 則雖其詞藻 宏麗侈靡 知詩者 固不取矣 清河崔承老詩曰 有田誰布穀 無酒可提壺 山鳥何心緒 逢春謾[㉠]自呼 辭語清絕 意味深長 頗得古人賦比之體 昔韓昌黎遊城南作詩曰 喚起窓全曙 催歸日未西 無心花裏鳥 更與[㉡]盡情啼 山谷云 喚起催歸 二鳥名 而若虛設 故後人多不覺耳 然實有微意 蓋窓已全曙 鳥方喚起 何其遲也 日猶未西 鳥已催歸 何其早也 二鳥無心 不知同遊者之意乎 更爲我盡情而啼 早喚起而遲催歸 可也 至是然後 始知昌黎之詩 有無窮之味 而用意之精深也 布穀提壺 亦皆鳥名 清河此詩得韓法 - 洪萬宗, 『小華詩評』 -</p>
적 중 근 거 자 료	<p><적중> *선행모의고사 6회 4.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2점]</p> <p>凡爲詩 意在言表 含蓄有餘爲佳 若語意早露 直說無蘊 則雖其詞藻宏麗侈靡 知詩者固不取矣 清河崔承老詩曰 有田誰布穀 無酒可提壺 ㉠山鳥何心緒 逢春謾自呼 辭語清絕 意味深長 頗得古人賦比之體 -洪萬鍾 『小華詩評』</p>